



기자의 얼굴



기자라 말하니,
고달픈 일을 하소연 하던
택시 기사 아저씨의 간절한 눈빛도
대단한 일 한다며 밥을 더 퍼주던
식당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도
기레기 아니냐며 손사래 치던
한 대학생의 찌푸린 눈살도

모두 기자의 얼굴이었네
그들이 본 기자의 얼굴이었네

우린 고된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론 놀라운 일들을 알리며
때론 누군가의 눈물을 값아먹으며
기록하며 또 기록했네

모난 구석, 잘난 구석 모여
기자의 얼굴이 되었네

슬픔을 쓰되, 적시진 말고
위로는 하되, 위가 되려 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싸우되, 대우 받으려 하지 말고

그게 기자 얼굴이면 좋겠네
그런 기자면 좋겠네 🍷